

<연구과제명>

지식 권력의 변천과 동아시아 인문학 : 한·중·일 지식 체계와 유통의 컨디버전스

<연구요약>

본 연구는 15세기에서 20세기 전반기까지 동아시아의 지식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동아시아의 시·공간 위에 전개되었던 지식의 생산, 유통의 제 과정, 성과, 그리고 당대 지식 지형의 중심에서 있었던 다양한 지식권력의 변천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부 연구팀을 지식기반 형성팀, 지식 지형도 재구성팀, 지식의 사회화팀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다. 지식기반 형성팀은 지식생산의 기반과 메커니즘을 구명한다. 지식 지형도 재구성팀은 동아시아의 통시적·공시적 지식 지형도를 재구성한다. 지식의 사회화팀은 지식의 확산과 사회화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인문학적 성찰을 한다. 각 팀의 연구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 기반 형성팀에서는 지식이 어떠한 요소들의 융합으로 생산되는가, 지식은 어떠한 사회적 토대 위에서 생산, 발전, 진화, 확산해 나가는가, 특정한 지식 체계의 수용-변형-창출의 과정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는가 등과 같은 지식 생산의 기반과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지식 지형도 재구성팀은 지식 집단과 지식권력의 종적·횡적 범주와 상호 관계를 확인해 지식의 계급/계층적 속성을 살피고, 지식 집단과 제 분야 간 네트워크 계보를 완성한다. 이를 통해 15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권력의 창출과 확산 방향을 파악해 동아시아의 통시적·공시적 지식 지형도 재구성을 목표로 한다. 지식의 사회화팀은 ‘지식의 사회화’ 규정과 개념 정립을 기반으로 사회적 요구에 의한 지식 변형 과정을 검토하고, 지식 권력의 공유 방식을 통한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지식 체계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양상으로 사회에 구현되는가, 특정한 지식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회에 구현된 경우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사적 맥락의 현상적 분석에서부터 현재 제기되는 인문학적 성찰의 문제까지를 연구 범주에 포괄한다. 각 팀의 연구는 기초 연구, 심화 연구, 성찰과 비전제시의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여,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연구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